

# 민주당 강운태 vs 이용섭 ... 安신당 윤장현 부상

■ 이슈&변수

## ‘안철수 신당’ 창당 땀 전국최대 승부처 이용섭 출마 때 의원직 사퇴여부 주목

### 광주광역시장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없지만, 현재 4~5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간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강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시정에 전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관리에 들어갔다.

광주시청에서 근무중이던 강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사퇴하고 사실상 선거캠프에 뛰어들었으며, 강 시장도 지난달부터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 투어’를 진행하면서 ‘재선 도전’을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재선’인 이용섭 의원은 최근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진짜 바람

강운태 ‘경청 투어’ 진행 재선 도전  
이용섭 내년 1월 출마의사 밝힐 듯  
윤장현 ‘토크 콘서트’ 젊은층 접촉  
정용화 지역 현안문제들 대안 모색

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어본 뒤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내년 1월께나 출마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장 선거 출마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선거캠프 구성 등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민주당 경선에서 한바탕 맞붙었다. 당시 경선에서는 강 시장이 이 의원

을 간발의 차이(0.45%포인트)로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

이밖에 강기정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향후 정치변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후보를 위협할 존재로는 ‘안철수 신당’ 후보군이 꼽히고 있다. ‘안철수 신당’ 후보로는 윤장현 광주 전남 비전 21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대부’로도 불리는 윤 이사장은 현재 조심스런 행보를

### ■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정당	민주당	민주당	안철수신당	무소속
이름(나이)	강운태(65)	이용섭(62)	윤장현(65)	정용화(49)
주요경력	· 광주시장 · 전·국회의원	· 국회의원 재선 · 전·간실교통부 장관	· 광주 전남 비전 21 이사장 · 전·YMCA 이사장	·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 전·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 후보는 가나다 순

하고 있는 것이며, 신당이 뜰 경우 광주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다.

윤 이사장은 지역 내 통일·인권 등의 시민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중앙 정치권 및 시민단체·경제계 주요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워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로 꼽히고 있다. 최근 조선대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과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주로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접촉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신당 후보군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장화석 교수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던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도 3일 ‘광주는 행 상생의 민영화 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조심스런 행보에 나섰다.

/최명필기자 cki@kwangju.co.kr

내년 광주시장 선거의 쟁점과 변수는 ‘안철수 신당’ 창당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돼 후보를 내세울 경우 광주시장 선거에서의 최대 쟁점은 민주당의 지역 내 ‘일당 독점’과 안철수 신당의 정책성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당이 창당될 경우 신당 후보는 지역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폐해와 민주당의 지역 패권주의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 후보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 야권 분열 세력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덧발’ 수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신당 또한 호남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신당이 불적·인적자원을 총력 투입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

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하는 만큼 양 진영의 당내 경선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리턴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출마할 경우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안철수 신당 측도 후보 선출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출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내세울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측은 경쟁력 있고, 중량감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당 측이 지역인물이 아닌 외부인사를 ‘낙하산’식으로 공천할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명필기자 cki@kwangju.co.kr

# 진보 vs 중도 vs 보수, 장휘국 vs 反장휘국 전선

■ 이슈&변수

## ‘②번을 누가 뽑느냐’ 로또방식 개선 진보·보수 후보단일화 여부도 주목

### 광주시교육감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10명 안팎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출마 기념회와 출마 선언 등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이며, 혁신학교·학력제 등 광주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입지자들간 공방전도 뜨겁다.

하지만 선거구도는 의외로 단순하다. 진보 대 보수, 장휘국 대 反(反)장휘국 전선이다.

진보진영은 장휘국 현 교육감과 정회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이 ‘대표선수’로 뛰고 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자신을 지지한 진보교육단체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추대를 통한 재선’을 노리고 있다. 3년 전 자신을 옹립한 추대위원회 원로들과 최근 만나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의원은 장 교육감의 재추대를 반대하며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공식 출마선언을 통해 “진보와 보수

### ■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이름(나이)	김승(61)	김명수(66)	김왕복(58)	박인화(65)	박표진(58)	양형일(62)	윤봉근(56)	장휘국(63)	정희곤(61)
주요경력	· 동명중 교장 · 전·서부교육장	·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 전·삼산초 교장	· 조선이공대 총장 · 전·교육부 차차 지원국장	·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 광주초등교장 협의회장	· 광주대 교수 · 전·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 전·조선대 총장 · 전·국회의원	· 광주시의원 · 전·광주시 교육위 의장	· 광주시교육감 · 전·전교조 광주지부장	· 광주시의원 · 전·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 후보는 가나다 순

진보 장휘국·정희곤 단일후보 노려  
중도 양형일·윤봉근 도전 밝혀  
김왕복·김승·박인화·박표진·김명수  
보수진영도 동분서주 행보

라는 낯은 프레임으로 교육현장이 갈라져서 안된다”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후보단일화를 주장했다.

중도 성향으로는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과 전교조 출신의 윤봉근 광주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양 전 총장은 국회의원을 지내 인지

도가 높은 게 강점이다. 최근 자녀교육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교육에세이를 출간해 교육감 도전을 사실했다.

윤 의원은 광주시의회와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낸 경륜으로 진보와 보수를 꺼안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달 출마기념회에서 “큰 생각 열린

리더십으로 광주교육의 미래와 새 희망을 열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는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과 김승 전 서부교육장,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김명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의 김왕복 총장은 최연소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며 등 정통 교육관료로 교육부의 인맥이 탄탄하다. 교육부 재직 시절 200여인 규모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비를 따오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했다.

서부교육장을 지낸 김승 동명중 교장은 초·중·고 교사와 장학사·장학관·교장 등을 두루 거쳐 교육행정의 달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출마기념회를 통해 선거 행보를 가시화한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매개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박표진 전 부교육감은 9급에서 부교육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최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광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김명수 이사장도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선출 방식의 변화다. ‘②번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현행 ‘로또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 여부다.

정치권에서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현행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둘 다 정치권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구조다.

이럴 경우, 교육감 후보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만큼 어느 누가 민주당 또는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와 짝을 이루느냐가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보수 모두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진보진영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장

휘국 교육감과 정회근 의원의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장 교육감은 ‘양보용 통한 재추대’를 바라는 반면 정 의원은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윤봉근 의원은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는 한 발 떨어져 있다.

5~6명이 난립한 보수진영 후보들도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높이다가 내년 예비후보등록 시점을 계기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를 표방한 장휘국 교육감의 3년 평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와 달리 진보·개혁 바람이 휩쓸고 간다는 낮은 메타 ‘학력제’ 논란, ‘교육행정 불신’, ‘소통 부재’ 등 진보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세기보청기

##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14길 삼일로 47구 02276-0367 9 강남역(강남고속터미널) 02347-5110 중도2(점점점) 02703-0220 송파(점점점) 2번 출구 02419-3388 선릉(점점점) 2번 출구 02365-1838 경기 인천(구 서인회관) 02021-2288 부평(점점점) 02217-5110 수원(점점점) 031246-5110 오정(점점점) 03121-6655 안양(점점점) 031493-0110-1 행복(점점점) 011668-6110 용인(점점점) 031306-1000 오산(점점점) 031378-4183 부천(점점점) 03329-4400 남양주(점점점) 호정역 033829-8303 부산 사면(점점점) 051818-8800 서안정 018-0016 남포(점점점) 051266-7200 울산(점점점) 03326-2283 경남 마산(마산역) 05623-4000 진주(점점점) 05469-2246 광주(점점점) 02225-5110 광주(점점점) 02601-4477 전남 순천(점점점) 061702-8945 전북 전주(점점점) 03323-5726 군산(점점점) 03346-0198 익산(점점점) 03309-5000 남원(점점점) 03302-3326 4대천 대전(점점점) 04224-5110 대전(점점점) 04222-3388 대전(점점점) 04225-4300 충남 천안(점점점) 041653-2988 광주(점점점) 041932-5110 충북 청주(점점점) 04322-117-8 충청(점점점) 04382-1414 강원 강릉(점점점) 03364-0586 춘천(점점점) 03353-5110 제주 제주(점점점) 0647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 식품의약품 FDA허가 인증  
ISO 9001 인증  
ISO 13485 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C 의료용기 제조인증

**■ 광주점(080-222-5110)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080-222-5110)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061-752-8845) 문의전화 (061)752-8845**